

박물관사람들

2017년 가을 · 59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17년 가을 ■ 59호 Contents

기획/조선후기 지식인의 문화		
	벽과 치	4
	놀자, 단 제대로	8
	그리고 유람은 계속된다	11
문화칼럼	오대산을 꿈꾸며	14
회원마당	세월을 뛰어넘은 미니멀리즘	18
답사기	자연을 담아내다	20
회원마당	무언극	23
학술상	갈항사지 등·서 삼층석탑에 대한 고찰	27
박물관 소식	왕이 사랑한 보물	32
숨은 전시	소원을 말해봐	33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34



정선, <신묘년풍악도첩> 중 백천교, 국립중앙박물관



〈태평성시도〉중 영무새, 국립중앙박물관

벽 과 치 癖 痴

조선에는 두 번의 르네상스가 있었다고들 한다. 전기의 세종 시절과 후기의 영·정조 시절. 이 가운데 영조는 1724년부터 1776년까지, 정조는 1776년부터 1800년까지 왕의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18세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격렬한 정치적·사회적 변화가 일어난 시기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일어났다. ‘근대’가 막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인간의 ‘이성’을 믿는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존재했다. 한편 건륭제가 다스리는 중국, 에도 바쿠후의 일본, 영·정조의 조선 등은 정치적으로는 안정된 사회였지만, 사회적 변화는 거세게 진행되고 있었다.

18세기의 이런 변화는 17세기에 전 세계가 겪은 ‘소빙하기’가 가져온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소빙하기에는 평균온도가 섭씨 1도 정도 낮아졌는데, 그 영향은 엄청났다. 런던의 템스 강과 중국의 양쯔 강, 조선의 동해가 얼어붙었다. 동해는 17세기 동안에만 무려 6번이나 얼었다는 기록이 있다. 당연히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대기근이 찾아왔다. 조선에도 현종 때인 1670년~1671년 경신 대기근이 있었고, 숙종 때인 1695년~1696년에는 을병 대기근이 다시 찾아왔다. 두 차례 모두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의 대참사였다.

이런 위기는 한편으로는 긍정적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기회로도 작용했다. 얼어붙은 런던의 템스 강에서 열렸던 시장은 상설시장을 만들어 냈고, 이탈리아의 추위는 나무를 단단하게 만들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어 냈다. 조선에서도 온돌이 보편화되었고, 숙종은 상평통보를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시켰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공명첩’을 발행했고, 납속을 통해 면천免賤하는 노비가 늘면서 신분 질서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또한 먹을 것을 찾아 떠돌던 백성들이 상대적으로 구휼제도가 갖춰져 있었던 서울로 몰려들게 된다. 이런 인구 집



에이브러햄 혼디우스, 〈템스 강의 빙상 시장〉

중으로 18세기의 근대적 도시와 상공업 발달에 꼭 필요한 인적 토대가 갖추어졌다. ‘계몽주의’가 백과전서로 피어나고, 건륭제는 ‘사고전서’를 편찬하던 18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내면에서도 격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첫 번째 계기는 사신 행차 때 수행원으로 북경을 다녀온 이들의 경험이었다. 청나라는 100년 넘게 외척은 ‘오랑캐 나라’라는 구호만으로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넓은 도로, 으리으리한 건축물, 유리창 거리에 차고 넘치는 책들, 고딕식 성당과 서양의 과학 기술까지 한꺼번에 접한 그들은 엄청난 문화 충격에 빠졌다.

박지원의 「재맹아再盲兒」에는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이런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본분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어찌 문장뿐이리오,
일체 온갖 일이 모두 그렇지요. 화담 서경덕 선생이
외출하였다가 길을 잃고 길에서 우는 자를 만났더랍니다.
“너는 어찌하여 우느냐?”고 했더니 “제가 다섯 살에 눈을
떨어 지금까지 스무 해나 됩니다. 아침에 나와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천지만물이 맑고 분명하게 보이는지라
기뻐서 돌아가려고 하니, 골목길은 갈림도 많고 대문은
서로 갈아 제집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선생이, “내가 네게 돌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도로 네 눈을 감아라. 바로 네 집을 찾을
것이다.”라고 하자, 이에 눈을 감고 지팡이를 두드리며 걸음을
믿고서 바로 도달하였더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깔과 형상이 전도되고, 슬픔과 기쁨이 작용하여 망상이 된
것입니다. 지팡이를 두드리며 걸음을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분수를 지키는 관건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보증이 됩니다.*

정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p.114



작자 미상, <풍속도병>, 기메미술관

조선의 지식인들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을 때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택한 방법은 다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체성을 세우는 일이었다. ‘옛날 중국 성현의 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진실’을 추구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지식인의 자의식 변화는 18세기의 세계적 현상이었다. 지도의 발달과 그에 따

른 여행문화의 확산, 도시화에 따른 원예에 대한 관심과 수집 취미 확산, 출판시장 확대 등이 동서양 모두에서 나타났다.

‘지금 여기’에 대한 관심은 돌, 꽃, 새 같은 하찮게 여겨던 사물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난다. 이른바 ‘덕후’, 다른 말로는 ‘벽’과 ‘치’의 출현이다. 이서구(1754~1825)는 17살 때 북경에서 들여온 초록앵무새를 길렀다. 새를 키우면서 관찰한 내용과 책에서 찾은 자료들을 정리해 『녹앵무경』이라는 책을 묶었다. 유득공도 비둘기를 키우면서 『발합경』을 썼다. 이 책에는 무려 23종이나 되는 비둘기의 이름이 나온다. 정약용은 닭을 키운다는 소식을 전해온 작은아들 학유에게 보낸 편지에서 ‘닭을 길러도 사대부처럼 기르고, 닭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계경』을 써 보라.’고 권유한다. ‘사서삼경’에나 붙이던 ‘경經’이란 글자를 무엄하게도 앵무새, 비둘기, 닭에게 붙이는 이들의 글쓰기는 그만큼 발달하고 유쾌했다. 동물뿐 아니라 꽃에 대한 관심도 유별났다.

유득공의 친척인 유박은 황해도에 ‘백화암百花菴’이란 집을 지어놓고 온갖 꽃을 길렀는데, 그의 집에는 없는 꽃이 없고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 있었다고 한다. 김홍도가 그림 값 3000푼을 받아 집으로 가다가 기이한 매화를 2000푼에 사고 너무도 기뻐 800푼에 술 몇 말을 사서 친구들과 매화를 감상하며 마셨다는 이야기가 조희룡의 『호산외사』에 실려 있다. 남은 200푼으로 산 쌀과 딸감은 하루치밖에 안 되었단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절의 제자 황상이 은자隱者의 거처는 어떠해야 하느냐고 묻자 긴 글을 써 주는데,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다. “담장 안에는 석류와 치자, 목련 등 갖가지 화분을 각기 품격을 갖추어 놓아둔다. 국화는 가장 많이 갖추어서 48종 정도는 되어야 잘 갖추었다 할 만하다.” 실제 정약용은 한양 명례방에 살던 시절 자기 집 정원에 대해 “국화는 종류별로 18개 화분이 있다.”고 썼다. 이 시절에 쓴



<태평성시도> 중 꽃가게, 국립중앙박물관

「국영시서菊影詩序」에는 친구를 불러 ‘촛불 앞의 국화 그림자’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온다. 참으로 낭만적인 광경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꽃 재배와 거래도 활발해졌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태평성시도>를 보면 꽃이 활짝 핀 도자기 화분들을 진열한 상점이 보이고, 가마에 화분을 엮고 배달을 나가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꽃을 재배하는 기술도 상당했다. 국화를 잘 기르는 김노인이란 사람은 꽃을 일찍 피게도 늦게 피게도 할 수 있었다. 꽃의 크기를 손톱만 하게 키울 수도 있고 엄청 크게 키울 수도 있었다. 옷칠한 것처럼 검은 국화꽃을 피울 수도 있었고, 한 줄기에서 여러 색깔의 꽃을 섞어 피울 수도 있었다고 한다. 실제 김홍도의 그림인 <모당 홍이상 평생도> 중 회흔례 장면에는 검은빛 국화가 있다.



김홍도, <모당 홍이상 평생도> 중 회흔례, 국립중앙박물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올바른 변화의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18세기 지식인들은 당대의 문화를 풍성하게 만든 조선 후기 르네상스의 주역들이었다. 다양한 개성을 자랑했던 이들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박지원과 정약용이다. 원각사지십층석탑이 있는 한양의 탑골에 살았던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 ‘백담파’는 청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여 우리 삶의 질을 높이자는 ‘이용후생’을 주장했다.

한편 강진 유배 18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500권이 넘는 책을 엮어 낸 정약용은 『목민심서』, 『흙흙신서』, 『경세유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국가 경영에 필요한 고급의 온갖 정보를 모으고 정리해 ‘경세제민’을 이루려 했다. 이들의 꿈은 정조가 사망하고,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정신은 글 속에 살아남아서 ‘4차 산업혁명’이니 ‘AI시대’니 하는 지금 여기의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김문숙 회원

놀 단 자, 제 대로 風流

풍류. 간단히 말하면 즐겁게 노는 것이다. 근데 조건이 붙는다. 즐거운 건 기본이고 운치가 있어야 하며 멋 또한 있어야 풍류라 할 수 있다. 지금처럼 솔직함을 넘어 직설적인 시대엔 뭔가 좀 복잡하고 애매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불과 200여 년 전 조선의 선비들은 풍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세속의 시시비비를 떠나 자연을 가까이 하며 운치를 즐기는 풍류를 선비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으로 여겼다. 선비는 학문에 힘쓰되, 한편으론 풍류도 즐길 줄 알아야 선비다운 선비라 했다. 선비라 하면 단정한 옷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깨끗한 자세로 진중일 책상머리에 앉아 공자 왈 맹자 왈만 읊고 있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나 거창하게 시대와 신분을 얘기하지 않고도 어느 누가 답답한 방 안에서 무거운 내용의 경서만 읽고 있으려 했을까. 때로는 책을 덮고 깊은 산속 초당에서 홀로 거문고를 연주하며 매화를 감상하기도 하고, 경치 좋은 곳에서 마음 맞는 벗들과 시를 읊고 그림을 그리며 아취 있는 풍류를 즐겼다. 그 시절 그때를 남긴 그림을 들여다보며 그려지지 않은 그림 밖 참석자가 되어 그날을 추억한다.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이들과의 만남은 더없이 즐겁다. 좋은 한때를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하고픈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 보다. 지금이야 간단히 손가락 한 번만 누르면 기념 사진을 남길 수 있지만 조선의 선비들은 소중한 그 순간을 공들여 그림으로 남겼다.

이인문의 <누각아집도>는 풍광 좋은 곳에서 친구들과 시서화를 즐기는 모임인 아회雅會를 화폭에 담았다. 팔작지붕의 누각이 근사하다. 산과 바위, 계곡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화면 중앙에 누각을 두어 이 그림을 그린 의도를 확연히 드러냈다. 바위가 누각을 에워싸며 곧추 서 있고 저 멀리서부터 계곡물이 팔팔 소리 내며 누각을 휘돌아 아래로 흘러나간다. 숲엔 솔향기가 그윽하다. 모퉁이에서 차를 끓이는 아이의 모습

이 천연덕스럽다. 누각 안을 살펴보니 인물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마주앉은 두 사람은 탁자 위에 두루마리를 펼쳐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홀로 떨어져 무아지경에 빠진 듯하다. 누각 안의 저들이 누군지 궁금한데 다행스럽게도 그림 위에 소상히 적어 두었다.

*늙은 소나무가 몇 그루인가. 흐르는 물이
그 가운데를 지나니 푸르고 차갑구나.
탁 트인 누각 창에 한줄기 빛 영롱하게 비치는데,
의자에 앉아 축을 펴는 이가
도인 이인문이요, 손에 그림을 펴 들고 물끄러미
바라보는 이가 수월현 임희지요,
거문고를 내려놓고 난간에 기대어 있는 이는
주경 김영면이요, 걸상에 앉아 길게
시를 읊는 이는 영수인데,
가히 네 사람은 죽림칠현에 비길 만하구나…….*

굽은 노송을 특히 잘 그렸다는 이인문, 생황을 잘 불고 대나무와 난초를 잘 그렸다는 임희지, 시와 글씨, 그림과 거문고에 모두 뛰어나 사절四絶로 불린 김영면, 누군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영수였다. 그림 속의 인물들은 이름까지 밝힌 실재했던 조선 사람들인데 중국식으로 표현되어 좀 낯설다. 이인문은 76세에 이 그림을 그렸다는데 나이가

민기지 않을 정도로 선이 찬찬하고 세밀하다. 그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두루 겪은 이때쯤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린 듯하다.

요즘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다. 이왕이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함이다. 조선의 선비들도 이러한 목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풍류를 즐기고 친목을 도모했으며, 이를 기념하고자 계획도契畵圖를 그렸다. 고려 때부터 그려졌던 계획도는 조선에 와서 크게 유행했다. 계획의 제목, 계획 장면, 참석자의 명단 등을 적어 놓았는데 이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형식이라고 한다. 제작 연대를 확인할 수 있고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당대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잘 차려 입은 한 무리의 선비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 유숙의 <수계도>이다. 단번에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계모임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1853년 3월 3일, 왕희지가 곡수천에 술잔을 띄우며 시를 짓던 난정 모임을 가진 지 꼭 1500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하고자 문인 30명이 남산 기슭에 모였다. 모인 사람들 모두 갖과 도포를 갖추어 입고 있지만 사대부가 아닌 중인들이다. 잘 갖추어 입은 옷차림새나 말쑥한 외모가 제법 기품 있는 선비의 모습이다. 선비들의 모임답게 탁자 위엔 책과 문방사우가 놓여 있고 탁자를 중심으로 선비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있다.

유숙, <수계도>, 국립민속박물관





이인문, <누각아집도>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신윤복, <상춘야흥>, 간송미술관

두루마리를 펼쳐 놓고선 긴 담뱃대를 물고 시상에 잠기거나 조용히 담소를 나눈다. 인물 개개인의 모습을 초상화처럼 매우 사실적으로 그렸으며 얼굴 표정과 안경, 수염 등으로 인물의 특징을 표현했다.

이때 유숙의 나이 27세로 엇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림 속에 자신을 담았다. 그림에 이어 모임에 참석한 30명 모두의 시가 적혀 있어 시·서·화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수계도>는 왕희지의 <난정수계>를 연원으로 하고 있으나 인물들의 의복은 중국풍을 벗어나 철저히 우리식이어서 당시 변화하고 있는 의식이 반영되었다. 18세기 이후 경제적

으로 안정된 기반을 가진 중인들이 극복할 수 없는 신분의 한계를 문화적 풍류를 향유하며 극복하고자 했던 시대상을 보여준다.

예와 의를 삶의 기본 덕목으로 삼았던 조선의 선비는 풍류를 즐길 때도 통속적인 즐거움은 외면한 채 명분만 앞세웠을까? 당연히 아니었다. 신분을 접어 두면 선비도 일반적인 성정을 지닌 사람이니까. 시서화를 가까이 하는 점잖고 아취 있는 풍류를 즐기는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가는 대로 유희의 풍류도 즐겼음을 신윤복이 그림으로 드러낸다. <상춘야흥>에 그려진 선비의 인간적인 욕망에 실망하기보다 오히려 친근감을 느낀다. 지금 평범한 우리네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따스한 봄날, 곱게 핀 철쭉꽃의 분홍빛이 선비의 마음을 어지간히 흔들었나 보다. 들뜬 마음은 슬그머니 감추고 점잖은 얼굴로 봄맞이하러 밖으로 나왔다. 이왕 모처럼 놀아보기로 한 거 기생과 악공을 불러 흥을 더한다. 이제 막 여중이 술상을 들여오고 악공들의 연주가 시작되며 봄날의 흥취를 돋운다. 품위를 지켜야 할 선비들이 기생과 함께 노는 행락인데도 전혀 저속한 분위기가 아니다. 아직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은지 무릎을 모아 수줍은 듯 고개 숙인 옛된 기생의 어린 모습이 이 자리를 과하지 않게 한다. 가늘고 유연한 선과 은은한 고운 색감이 이 풍류의 격을 도시적인 세련미로 격상시킨다.

옛사람들 참 잘 놀며 잘 살았다. 그때와는 너무도 다른 세상이 된 오늘날, 그네들이 즐긴 풍류는 정지된 화면으로 과거 속에 머물 뿐이다. 물끄러미 나 자신을 들여다본다. 무엇을 위해 어디로 그리 바쁘게 가고 있는지 도대체 생활에 여백이 없다. 지금 나는 내 삶의 풍류를 즐기고 있는가. 한 시절 소풍 나온 인생, 놀자. 단, 제대로. 🍷

계윤애 회원

그리고 유람은 계속된다



정선, <신묘년풍악도첩> 중 단발령망금강산, 국립중앙박물관

단발령. 비록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예전엔 한양에서 금강산으로 갈 때 누구나 넘었던 고개. 양 사면이 급경사를 이루기에 올라가는 길은 힘들어도 고갯마루에 올라서면 저 멀리 펼쳐진 내금강의 전경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곳이다. 1711년 신묘년, 36세의 정선은 몇몇 문인들과 함께 이 고개에 올라서 난생 처음 금강산을 대면했다. 그는 일만이천봉과의 첫 만남에 대한 인상을 산에 하얗게 빛나는 호분을 칠하여 표현했다.

그들이 살았던 18세기의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산수유람이 대유행했다. 그 이전에도 당연히 유람이야 했겠지만 이 시기의 산수유람의 빈도와 경향은 여러 모로 이전 시기와는 달랐다. 당대의 사상, 철학의 변화와 함께 심신을 수양하는 방법이 변했고, 영·정조시대 문예부흥을 일으킨 정치, 사회, 경제적인 변화도 한몫했다. 그들은 전국의 명승을 두루 답사하며 시와 산문을 짓고 가능하면 화가를 대동하여 기행사경도紀行寫景圖까지 남겼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글만 해도 수백 편이니, 당대에 그 작품들은 아직 떠나보지 못한 이들의 마음속에 불씨를 당겼으리라. 게다가 정선의 그림은 그 마음을 활활 타오르게 하지 않았을까?



정선, <신묘년풍악도첩> 중 백천교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당시에 선호했던 명승은 금강산, 지리산, 청량산, 소백산, 묘향산, 삼각산 등이었고 그에 대한 작품들도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백두산에 다녀온 기록들이 18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여행지로서 주목 받지 못했던 함경도에도 유람객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관동팔경처럼 명승을 8경이니 10경이니 하며 부르는 것도 이즈음에 자리잡았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은 단연코 금강산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고려에서 조선 시대까지 쓰여진 기행시와 기행문 중 절반 이상의 주제가 금강산과 관동의 명승지이다. 특히 18세기에는 금강

산 유람이 더욱 성행하여 금강산에 다녀오지 않으면 사람 축에 들지도 못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으니, 금강산 유람은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지식인들의 교양 필수가 아니었을까 싶다.


모두들 앞다투어 떠나는 산수유람의 길이었지만 전근대 시대의 여행이란 녹록지 않은 일이었다. 내금강 여행을 마치고 외금강으로 넘어가기 위해 백천교에 다다른 정선 일행의 모습을 살펴보자. 개울 저편 내금강 쪽에는 검은 갯을 쓴 사람 넷과 시종 한 명, 그리고 흰 고깔을 쓴 사람들이 네 채의 담여와 함께 있다. 또한 개울 건너 외금강 쪽에는 말이 대기하고 있다. 저 네 사람은 젊은 승려들이 메는 담여에 타고 내금강을 유람한 뒤 개울을 건너 말을 타고 외금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중이다. 금강산 여행 경로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서 한양에서 출발하는 경우 대체로 내금강을 먼저 보고 해금강과 관동의 명승 답사 후 외금강을 보고 돌아오는 일정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승려들이 사대부들의 산행에 동원된 것은 이들의 도움으로 세금과 부역을 감해 받기 위해서였다고는 하지만 담여를 메고 산길을 오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박제가는 묘향산을 담여로 오르면서 이들의 수고를 보고 차마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했고, 이인상이 태백산을 오를 때는 두 대의 견여를 메기 위해 90명의 승려들을 차출했다는 기록이 있다. 물론 여행자들의 형편에 따라 종자만 데리고 터덜터덜 산길을 걷는 선비 또한 있었겠지만,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식량, 취사도구, 옷, 신발, 이불, 베개, 방석, 깔개, 담뱃대 등 일상용품 외에도 지필묵과 여행 중 입을 책들 그리고 악기까지 챙겨갔다는 기록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재화와 인력이 투입되어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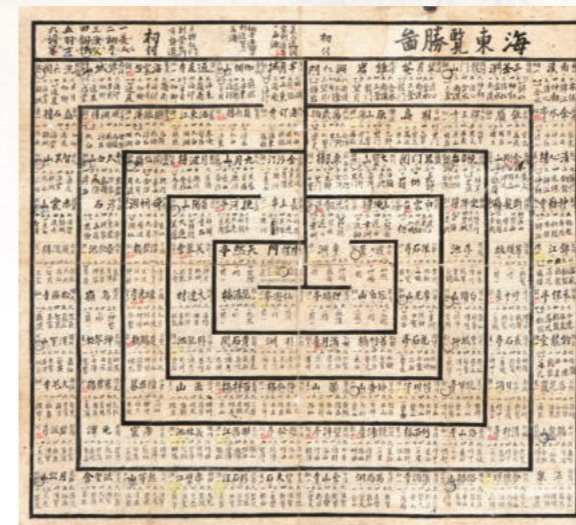
산수유람이라고 해서 단순히 자연경관만을 즐기러 간 것은 아니었다. 명승이라 이름 높은 곳들은 대부분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역사와 설화 등 인문경관을 겸비한 장소였다. 이러한 곳에서 시와 글을 지어 나누고 여행이 끝나면 다채로운 문체와 서술 방식으로 유기遊記를 써서 책으로 엮었다. 길 가는 중에 학문과 사상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유람 중 거쳐가는 고장의 방언과 민담을 수집한다던가 주거 형식을 취재한다던가 천체관측을 하는 등 개인적인 취미활동을 하는 한편 물수제비를 뜨거나 계곡에서 미끄럼을 타는 등의 장난을 치기도 했다. 물론 여기에 음주를 빠뜨렸을 리가 없다.

여행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유람이 끝난 것도 아니었다. 이들에게는 누워서 즐기는 또 하나의 유람, 와유臥遊가 남아 있었다. 여행에서 그러온 산수화를 걸어놓고 산수유기山水遊記를 읽으며 마음은 그 속에서 노닐었다. 또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쉽게 길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녀온 이들의 그림과 글을 함께 감상하며 와유를 즐길 수 있었다. 어찌 보면 와유의 소재를 채집하기 위한 유람이었을지도 모른다. 만인지상이지만 그 자리를 지

켜야만 했기에 차마 떠날 수 없어서 대신 김홍도에게 금강산과 관동의 명승을 그려오라고 명했던 정조의 심정 역시 그러했으리라.

이렇듯 여행 문화가 자리 잡은 18세기 후반부터 성행했던 놀이가 있으니 바로 남승도覽勝圖 놀이었다. 이름 그대로 전국의 명승을 유람하도록 만든 일종의 보드게임이다. 대체로 한양에서 출발하여 한성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함경, 평안, 황해, 다시 경기 순으로 돌게 되는데 대부분 필사했기 때문에 명승지 선정에 제작자의 식견을 반영할 수 있었다. 말을 옮길 때마다 술을 마시고 해당 명승에 대한 시를 지었다 하니 직간접적인 여행 경험과 즉흥시 창작이 가능할 만큼의 교양을 지닌 지식인이어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고급스러운 놀이인 셈이다. 놀이하며 지은 시들과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 함께 구성된 남승도도 존재한다. 술과 시, 서, 화가 합쳐진 이 놀이야말로 와유의 최종판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전 시기와는 차별화되는 생기와 개성으로 가득했던 18세기를 살아갔던 그들은 그렇게 두루 유람하고 그렇게도 즐겁게 와유했다. 

서유미 회원



해동남승도, 국립중앙박물관

해동남승도

송례문 → 천연정 → 음청루 → 선유봉 → 압구정 → 관악산 → 지지대 → 행주 → 세검정 → 산영루 → 백운대 → 손석정 → 마니산 → 화석정 → 선죽교 → 만월대 → 박연 → 청석관 → 외옹지 → 대련촌 → 부용당 → 수양산 → 만하정 → 장산꽃 → 금사정 → 구월산 → 월파루 → 동선령 → 선연동 → 부벽루 → 연광정 → 황학루 → 단군묘 → 무산 → 백상루 → 강서루 → 약산 → 묘향산 → 박천진 → 통군정 → 황성명 → 백두산 → 적지 → 수항루 → 원수대 → 귀문관 → 칠보산 → 낙민루 → 만제교 → 원산포 → 국도 → 석왕사 → 철령 → 금강산 → 단발령 → 보제판 → 시종대 → 홍석정 → 삼일포 → 청간정 → 낙산사 → 죽서루 → 경포대 → 망월정 → 월송정 → 소양강 → 의림지 → 남굴 → 구담 → 한벽루 → 탄금대 → 조령 → 공검지 → 부석 → 태백산 → 영호루 → 연지계 → 낙동강 → 영남루 → 해인사 → 반월성 → 가야산 → 통도사 → 해운대 → 금성산 → 세병각 → 축석루 → 화엄사 → 적상산 → 광한루 → 송광사 → 한라산 → 대둔사 → 벽파정 → 월출산 → 법성정 → 무등산 → 적벽강 → 채석강 → 망부석 → 금산사 → 만마동 → 관촉사 → 속리산 → 합덕연 → 온천 → 계룡산 → 낙화암 → 조릉대 → 영보정 → 금강 → 신록사 → 청심루 → 금수정 → 남한 → 삼부연 → 망월암 → 종암 → 흥인문



돈황 막고굴 제61굴

오대산을 꿈꾸며

10세기, 중국 북서 변방에 위치한 돈황 막고굴에서는 활발한 조영활동이 벌어졌다. 많은 불화와 판화가 제작되었으며, 허물어진 옛 석굴사원의 수리도 진행되었다. 그 중심에는 923년부터 이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한 조씨 일가가 있었다. 조씨 가문에서 처음으로 귀의군절도사의 지위에 오른 조의금曹議金을 시작으로 조원덕曹元德, 조원심曹元深, 조원충曹元忠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막강한 실세로 막고굴 조영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유례없이 큰 규모의 석굴사원을 만든 것으로도 유명하다. 여기 소개하는 제61굴 역시 이 시기에 조영된 것이며, 현존하는 돈황 막고굴 중 가장 큰 굴로 꼽힌다.

61굴은 조원충이 발원한 제55굴 옆에 위치하며, 규모나 구조면에서 55굴과 대칭을 이루고 있다. 두 굴 모두 작은 전실과 짧은 복도, 그리고 광대한 규모의 주실로 이루어져 있다. 굴 안으로 들어가면 눈앞에 큰 단이 펼쳐지고, 주위 벽은 다양한 벽화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좌우 벽 상부에는 각종 불교 경전을 도해한 경변상도經變相圖, 그 아래에는 48명이나 되는 공양인의 모습이 빼곡히 그려져 있다. 이들은 모두 조씨 가문의 여인들로, 그중 남벽 세 번째가 ‘심양군부인 적씨潯陽郡夫人 翟氏’ 즉 조원충의 부인이자 남편 조원충의 굴과 자신이 발원한 굴을 나란히 위치

시킨 것이다. 경변상도와 공양인의 초상으로 이루어진 벽화 배치는 51굴을 비롯한 동시기 석굴사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단 뒤에 펼쳐진 주벽(서벽)에 그려진 벽화에서 이 굴만의 독자성이 드러난다. 15.5m에 달하는 가로로 긴 화면 위에 소위 <오대산도五臺山圖>라 하는 그림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오대산은 중국 산서성에 위치한 불교 명산으로, 예로부터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사는 곳으로 여겨졌다. 관음보살의 보타산普陀山, 보현보살의 아미산峨嵋山, 지장보살의 구화산九華山과 함께 중국 불교의 4대 명산으로 꼽힌다. 언제부터 오대산이 문수보살의 주처로 여겨졌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늦어도 7세기부터는 많은 불교도들이 문수보살의 화현化現을 목도하고자 순례하는 성지로 각광 받았음을 알 수 있다.

61굴의 <오대산도>에는 오대(남대, 서대, 중대, 북대, 동대)가 가로로 긴 화면에 차례로 펼쳐져 있으며, 실제 오대산에 존재했던 여러 절들도 그려져 있다. 절 주위에는 승려들과 순례객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 외의 공간은 각종 신비로운 화현들이 메우고 있다. 하늘에는 부처의 머리와 손, 광배 등이 신비롭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러 권속들을 이끌고 내려오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들은 모두 문수보살의神通력과 존재감을 입증하는 것으로, 예로부터 오대산을 방문한 이들이 목도한, 혹은 목도하고자 했던 신이神異, 즉 신비로운 기적의 일부이다.

이 <오대산도>는 현존하는 오대산 그림 중 가장 크다. 뿐만 아니라 각 장면마다 명문이 있어 유례없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를 당시 순례객들이 지니고 다녔음직한 오대산 지도로 보는 학자도 있다. 오대산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돈황이라는 지역에 조원충의 부인 적씨

부인은 왜 이러한 오대산도를 그렸을까. 특히 석굴사원이라는 공간 내에 오대산도를 이와 같이 펼쳐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오대산에 대한 옛 문헌 기록에는 순례객들이 경험한 여러 신비로운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갑작스럽게 향기를 맡기도 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었으며, 공중에서 홀연히 등장한 밝은 빛을 보기도 했는데, 이는 모두 문수보살이 보이신 징험으로 여겨졌다. 산속에서 문득 노승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문수보살이 세속인들의 눈앞에 등장하는 방법이라 한다. 하지만 오대산을 찾는 이들이 가장 기대한 것은 문수보살의 참된 모습을 직접 목도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7세기에 저술된 『고청량전』에는 보살을 만나기 위해 쉬지 않고 경전을 읽거나, 심지어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소신공양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9세기 중엽 오대산을 찾은 일본인 구법승 엔닌圓仁 역시 보살을 보고자 하는 열망과 어려움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840년 음력 4월경에 오대산에 들어간 엔닌은 석 달간 다양한 신이들을 경험했다. 오색 빛의 등장과 급격한 날씨의 변화는 모두 문수보살이 보이는神通한 힘으로 여겨졌다. 엔닌은 음력 7월 2일 남대에 올라 문수보살의 현현



돈황 막고굴 제61굴 남벽 벽화




돈황 막고굴 제220굴 문수보살진용

을 보고자 간절히 기도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곧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성등聖燈, 즉 등처럼 밝은 성스러운 빛을 목격한 것이다. 그 빛은 처음에는 밥그릇만 한 크기였으나 점차 커지더니 작은 집채만 해졌다고 한다. 엔난을 비롯해 여러 성중들은 마음을 다해 문수대성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다른 성등이 근처 계곡에서 등장했다. 이 성등 역시 처음에는 샷갓만 하더니 점점 더 커졌고, 두 성등 모두 자정이 되어야 사라졌다고 한다. 이처럼 문수보살이 보인 여러 기적들은 먼 길을 온 순례객들에게 큰 보답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늦어도 10세기경부터 오대산 순례에는 큰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막고굴에서 발견된 문서는 이러한 변화를 생생히 전한다. 이 글을 작성한 이는 인도 승려 보화普化로, 오대산 순례를 위해 중국에 와 926년 드디어 산에 도착했다. 13일간 오대산 유람을 했는데, 첫 이틀간 머문 화엄사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 그는 이를 연속 문수보살상 앞에서 밤새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눈앞에 홀연히 성등이 등장했다. 다음날 밤 더 간곡한 마음으로 치성을 드리자 홀연히 얇은 빛줄기가 등장해 상의 얼굴을 비쳤는데, 마치 밝은 달이 공중에 걸린 듯했다고 한다. 보화의 경험이 이전과 다른 점은 특정한 상이 예배의 대상으로 등장했으며, 오

대산을 찾은 이들이 이 상을 통해 문수보살의 신이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984년 오대산을 찾은 일본인 승려 조넨喬然은 오대산에 도착하기 전부터 상에서 신비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상의 오른쪽 어깨에서 밝은 빛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발길을 재촉해 상이 안치된 보살진용원菩薩眞容院에 다다랐다. 빛은 오후 늦게까지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무려 300여 명의 승려와 신도들이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한다. 보화와 조넨이 본 이 상은 진용眞容, 즉 문수보살의 참모습이라 불리는 상이다. 8세기에 문수보살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장인의 눈앞에 보살이 친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문수보살의 모습을 직접 보고 만든 상이기 때문에 참모습, 즉 진용이라 불린 것이다. 보살은 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무려 72번이나 참모습을 드러냈다 하며, 이 상은 이후 오대산을 찾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 상은 원나라 말, 14세기경에 훼손되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수진용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수천 킬로 떨어진 돈황 막고굴에 잘 남아 있다. 제220굴에 그려진 10세기 벽화에는 몸 주위로 오색 빛을 찬란히 펼치며 사자를 타고 공중에서 내려오는 문수보살이 있는데, 그림 옆 명문에 '대성문수사리보살진용'이라 적혀 있다. 오대산 문수보살의 참모습眞儀이 그려진 판화도 돈황에서 발견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220굴의 벽화는 적씨부인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적봉달翟奉達이, 판화는 적씨부인의 남편 조원충이 발원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61굴 불단 위에 놓였던 상 역시 문수보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불단 위에 사자로 추정되는 네 발 짐승의 발자국과 영당이 자국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사자를 탄 문수보살상이었을 것이며 석굴의 규모를 고려하면 7~8미터는 훌쩍 넘는 상이었을 것이다. 굴을 찾는 이는 압도적인 크기의 문수상을 먼저 만난 후 상 뒤로 돌아가 그곳에 펼쳐진 <오대산도>를 보았을 것이다. 마치 보화나 조넨이 오대산에 도달하자마자 문수진용상을 찾아 신이를 경험한 후, 오대산 순례를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이처럼 61굴은 당시 오대산에서 행해지던 순례의 과정을 <오대산도>를 통해 재연해 놓은 것이다.

<오대산도>는 오대산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 그곳의 지리와 역사를 이해하고, 여러 신이들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대체물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굴 안에 그려진 공양자들이 모두 여자들이라는 점이 더 흥미롭다. 그들이 굴을 이처럼 꾸민 이유는 무엇일까. 오대산 유람에 대한 열망과 아쉬움을 이렇게나마 대신하려는 건 아니었을까. 

최선아 명지대학교 교수



돈황 막고굴 제61굴 서벽 벽화 <오대산도>

세월을 뛰어넘은 미니멀리즘

그동안 꽤 많은 부엌 살림살이들과 고락을 같이 해왔다. 양증맞은 간장종지, 방울꽃 무늬의 소담한 찻잔, 투박하고 소박한 뚝배기,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자기만의 개성과 사연을 지니고 있는 그릇들이다. 손때 묻은 나의 부엌 살림살이들을 바라보면 슬며시 미소가 번진다. 짧게는 고작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을 함께 해온 그릇 하나하나에 오래된 친구처럼 친근감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 집 주방에서 나와 함께 가정사를 나누지 않았어도 익숙한 친밀감이 느껴지는 그릇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도자기들, 그중에서도 백자 달항아리는 더욱 각별하다.

박물관에 가면 21세기에서 떠나면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타임슬립 영화의 주인공 공이 된다. 긴 시간을 품고 있는 유물들을 보며 혼자 은밀한 상상의 나라를 맘껏 펼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보물 1437호 백자 달항아리. 아무런 장식도 없는 흰색 항아리다. 부드럽고 풍만한 곡선미가 흐르는 이 달항아리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걸쳐 경기도 광주외 분원관요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달항아리를 처음 보는 순간 그동안 갖고 있던 도자기의 색감, 문양, 형태 등 도자기에 대한 생각이 한 방에 무너진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색의 비어 있는 공간은 사뭇 차분하고 넉넉한 여유로움으로 다가온다.

‘달항아리’라는 이름에서도 얼핏 느낄 수 있듯이 둥글고 큰 모양과 풍성한 느낌이 보름달을 닮았다. “달 달 밝은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흥얼거리던 노랫말 속의 보름달이 사뭇한 지상에 내려와 있는 것이다. 어렵풋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어릴 적 엄마의 따뜻한 젖무덤 같은 푸근함이 느껴져 유리창 너머로 손을 뻗어 만져 보고픈 충동이인다. 달항아리는 크기가 커서 한 번에 물레로 만들기 어려워 위와 아래의 몸통을 따로 만들어 붙였다. 붙인 부분이 굽는 과정에서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 완전한 원형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살짝 이지러진 둥그런 달항아리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완벽한 조형미보다는 대칭인



달항아리, 국립중앙박물관

듯 비대칭인 조금 모자란 듯한 어리숙함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푸근한 정을 느낀다. 자로 잰 듯 빈틈없이 완벽한 원형이 아닌 다소 불완전하고 어찌 보면 울퉁불퉁한 곡선이 꼭 우리들 여인네의 저고리 도련 같다. 도드라지지 않는 은근한 매력으로 마음을 끈다.

달항아리는 화려한 채색의 중국 청화백자나 깔끔하고 새침한 일본 자기와는 다른 절대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를 ‘절제’와 ‘함축’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싶다. 달항아리처럼 큰 항아리에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것은 유례없는 독특한 일이라고 한다. 달항아리의 넉넉한 흰 공간은 마치 여백처럼 느껴져 무엇인가 채워 넣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아름다운 무늬를 그리거나 새겨 넣고 싶은 욕망을 누르고 흰색으로만 남겨 두었다. 대단한 절제력이다. 덕분에 사람들에게 제각기 다른 생각과 감흥을 맘껏 품게 한다. 여백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해낸 도공의 숨결, 땀,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생각하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무한한 찬사가 터져 나온다. 비움과 내려놓음의 정점에 다다른 결과물이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또 다른 반전의 미를 담았다.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이 절실하게 마음에 와 닿는다.

달항아리의 단순미와 지극한 절제미는 매우 현대적이다.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21세기의 시공간에서도 여전히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의 위력에 긴장하는 현대의 어느 공간에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현대적인 감각의 달항아리아말로 미니멀리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완벽하게 표현한 오브제이다. 조선의 도공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미니멀리즘을 구현해낸 것이다. 백의민족이라 불리는 우리네 정서를 한껏 품은 은은하고 온화한 흰 빛깔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달항아리를 만든 도공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릇을 만들었을까, 이 커다란 항아리는 누군가의 주방에 아니면 서재에 자리하고 있었을까. 소소한 질문을 던지며 달항아리는 잔잔한 여운으로 오래도록 남는다. 🍵

이인숙 회원



미흐랍 천장, 메스키타

자연은 답이내다

숲속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나뭇가지들이 내어준 나뭇잎들이 하늘을 가려 숲의 천장이 된다. 나뭇잎 사이로 파란 하늘이 언뜻언뜻 보인다. 그 틈으로 빛이 든다. 나뭇잎들은 빛을 받아 선명한 잎무늬를 뽐내고 하늘빛과 닿은 숲의 천장은 서로가 서로를 물들여 하늘빛인지, 초록빛인지, 영롱하다. 그 빛이 감싼 숲도 영롱하다. 나무들이 서로 키재기를 하는 것은 하늘에 닿으려는 것일까, 하늘을 닮으려는 것일까. 나무숲의 천장을 우러러보고 있노라니, 스페인 코르도바에 있는 메스키타가 숲을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메스키타는 모스크라는 뜻의 스페인어이다. 로마인들의 교회가 있던 자리에 세운 스페인 최초 이슬람 사원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이슬람 사원이다. 베일의 사원으로 알려진 이곳에 들어서면, 말발굽 모양의 이중아치를 받치고 있는 850개의 돌기둥들이 숲을 이루듯 늘어서 있다. 아치형 돌기둥 사이사이로 신비롭게 비쳐 들어오는 빛이 흡사 숲을 연상케 한다. 자연을 담아 놓은 메스키타는 그리스도교 건축 양식과 이슬람 건축 양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무데하르 양식으로 꾸며져 있다. 숲속 같은 신비로운 공간을 헤매다 보면, 모스크 내에서 가장 화려하게 장식된 한쪽 벽을 만나게 된다. 미흐랍이다. 이슬람 사원에서 미흐랍은 그들의 성지인 메카를 향한 곳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다. 사각형의 단집 안에 있는 천장의 돔과 벽에는 온통 기하학적인 도형, 문자, 식물무늬 등이 반복적으로 어울린 아라베스크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이 문양들은 그림인가, 언어인가, 염원인가. 천장의 돔 주위에 나 있는 창으로 햇빛이 스며들어, 미흐랍의 찬란한 문양은 영롱한 보랏빛이 되어 신비감을 더한다. 천장의 돔을 고개가 아프도록 뚫

어지게 올려다보노라면, 돔의 가장 중앙에서 무함마드의 상징인 파란색 별 모양을 찾을 수 있다. 이슬람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교리로 사람 얼굴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문양으로 신의 세계를 표현한 것 이리라. 그들은 무엇을 말하기 위해 저토록 신비로운 질서의 모습을 그렸을까. 천장의 황홀한 문양에 취하다 보면 나무숲처럼 하늘에 닿으려는 그들의 염원이 느껴진다. 무슬림은 여성과 남성의 공간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다. 사원에서도 남녀가 들어가는 출입구가 다르고 예배하는 공간도 다르다.

지난 여름 국립중앙박물관회에서 답사를 갔던 익산의 나바위 성당과 두동 교회에서도 신도석을 남녀 구별하여 배치하였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남녀가 유별했던 유교문화 시대에 수용한 그리스도교의 모습이다. 대한제국시대 때 세워진 나바위 성당은 앞면은 고딕식이고, 옆면은 한옥식으로, 서양과 동양의 건축 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본래 내부공간은 남녀 신도석을 구분하기 위해 가운데 줄지어 선 기둥들 사이에 칸막이가



돌기둥 이중아치, 메스키타



신도석, 두동 교회



익산 나바위 성당



팔각 창, 익산 나바위 성당

있었다. 현재는 기둥만 있고 칸막이는 없는 상태다. 바닥은 장마루이고 판자로 마감한 천장은 모스크의 화려한 천장과는 대조적으로 간결하고 단아하여 오히려 숙연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제대祭臺가 있는 곳은 반원 아치로 되어 있다. 제대 뒷면에 있는 감실은 한국성당에서는 보기 드문 닫집이 드리워져 있어 특이하다. 양쪽 벽면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아치창이 나란히 서 있다. 창문마다 채색 한지로 '십자가의 길'을 모자이크 했는데, 서구적인 느낌과 동양적인 느낌이 조화롭게 어울려 이색적이다. 천장 바로 아래에는 중국풍의 팔각형 채광창이 사방으로 나 있다. 팔각 창으로 빛도 드나들고 사방의 나무들도 기웃거린다. 이곳 또한 자연과 어울리니 숲의 기운이 느껴진다.

두동 교회는 한옥으로 함석지붕에 서까래만으로 된 홀 처마집이다. 남녀 신도석을 직각으로 배치하여 서로 볼 수 없도록 아예 건물 자체를 'ㄱ' 자형으로 만들었다. 출입문도 남녀 따로 두었다.

한옥으로 단아하게 차려입은 건물 마당에 동구나무 한 그루 멋스럽게 지키고, 그 뒤쪽으로 목재 종탑이 세월을

담고 서 있다. 내부바닥은 장마루가 깔려 있고, 직각이 만나는 중심에 강단이 놓여 있다. 하얀 회벽에 서까래와 대들보가 드러난 천장은 옛 정취가 느껴진다. 사방에 유리창살문으로 창을 내어 빛이 잘 들도록 하였다. 강단에서 좌우를 둘러보면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보는 듯하다. 멀리서 바라보는 두동 교회 모습은 자연을 담은 것뿐 아니라 자연에 담긴 그 자체다.

나무숲의 천장은 어떤 문양일까. 다시 나무를 올라다본다. 나무는 어떤 염원으로 저리 흔들리는가.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는 기도하게 되고, 영혼이 맑아짐을 느낀다. 끝없이 뻗어내려는 나뭇가지의 생명력, 영원한 우주의 상징인 빛으로 빛어 놓은 메스키타, 나바위 성당, 두동 교회. 이 사원들처럼 각각 믿는 대상은 다르지만, 저마다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자연의 생명력을 종교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리라. 자연과 인간과 신이 공존하는 공간이라. 어딘가에서 세기의 건축가, 스페인의 가우디가 한 말이 울려온다.

“저기 저 숲속의 자연이 나의 건축의 표본이다.”

강현자 회원

무언극



어느 날 기다란 석상이 등장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쪽 벽을 차지한 거대한 포스터의 주인공이다. 떡잎처럼 마주 붙은 두 눈과 길쭉한 세모 코가 얼굴의 전부다. 같이 있어도 문자는 항상 이미지 뒤로 숨는다. 석상과 눈맞춤하며 계단 꼭대기에 이르고 나서야 전시 제목 '아라비아의 길'이 눈에 들어왔다. 바람무늬가 물결 같은 모래바다와 작열하는 태양을 떠올리게 하는 곳, 아라비아 반도. 그곳에서 기원전 4천 년부터 만들어졌다는 사람 모양의 석상은 현재까지 100여 개의 닮은꼴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단순하지만 풍부한 표정이 마음에 담겼다. 딱히 뭐라고 꼬집을 수는 없지만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도 아라비아 사람들이 차는 것과 비슷한 단검이 달린 허리띠만이 눈에 설 뿐 어디선가 본 듯도 했다. 간 적 없는 낮선 곳에서, 산 적 없는 아주 먼 옛날에 태어난 석상에 여러 얼굴 이미지가 겹쳐졌다.



사람 모양의 석상,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조가비 탈, 국립중앙박물관

얼굴 모양의 조가비는 해안·강변에 살던 선사시대 사람들이 먹고 버린 조개·굴 등의 껍데기가 쌓여 무덤처럼 보이는 패총(부산 동삼동)에서 발견되었다. 패총은 조개껍데기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더미라는 뜻의 조개무지라고도 불린다. 조개껍질의 탄산칼슘 성분이 토기와 석기, 짐승의 뼈나 뿔을 보존해준 선사시대의 보물 창고다.

주로 해안가 의식 장소에서 나온 사람 모양의 석상처럼 조가비도 주술 행위와 관련 있다고 한다. 작은 조가비에는 얼굴을 덮는 미용 마스크처럼 크고 작은 구멍 3개뿐이다. 장난꾸러기 아이의 활짝 웃음처럼 보이는데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의식에 쓰였다니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의 가면이었나 보다.

상상 속에서 지구상 수십 억 사람들의 얼굴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서로 다른 부분을 털어내고 또 털어내 본다. 남는 것은 세모, 네모, 동그라미의 조합이 되려나. 석상과 조가비 외에 꺼병하게 눈을 껌벅이는 망와(지붕의 마루 끝에 세우는 우뚝한 암막새), 무덤하다 못해 무심할 듯싶은 벽수(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장승을 부르는 이름)가 떠오른다. 샅된 것을 물리치는데도 우악스럽거나 까칠하지가 않다. 간결한, 심지어 입이나 코가 없는 허술한 생김새와 수더분한 모습에 정감이 간다. 누구도 아닌, 그래서 모두의 얼굴이 되는 유물들과 더불어 실재했던 누군가와 당시 일상의 풍경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있다. 그들이 말없이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황해남도 안악군에 있는 흙무지돌방 무덤(한성백제박물관 '고구려 고분벽화' 전시)에는 고구려 상류층의 생활모습과 문화를 알려주는 벽화가 가득하다. 357년 조성 같은 여러 내용이 먹글씨로 남아 있지만 무덤 주인이 전연에서



벽수, 우리옛돌박물관



사람얼굴무늬 망와, 국립중앙박물관

망명한 동수인지, 고구려의 미천왕 또는 고국원왕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벽면이 석회암 판석인 여러 방 구조로 서쪽 끝방은 무덤주인 부부의 공간이다. 서벽에는 여유 있는 표정의 남성이, 남벽의 화려한 평상 위에는 두툼한 몸집의 여성 초상이 그려져 있다. 한국 전통 미술에서는 보기 드문 부부 초상이다. 무덤 주인이 생전 누렸을 권세와 부귀영화가 한눈에 들어오는, 250여 명이 등장하는 행렬도 앞에서도 알콩달콩 하는 부부의 모습이 상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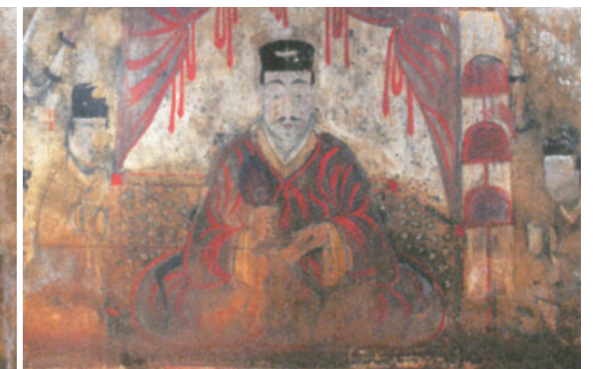
1700여 년 전과 현재 삶의 간극이 커다랗게 때론 소소하게 다가오는 벽화들을 살펴보다 부인의 오른편 여성 두 명에게 눈길이 멈췄다. 부인보다 조금 작게 그려졌지만 부인과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다. 삼국시대 머리단장은 신분과 지위를 알려주는 지표의 하나라고 했다. 벽화 속 머리 모양은 혼자 하기는 어려운 가체를 올린 얽은머리이다. 상하관계로 처지가 다른데 공을 많이 들여 같은 스타일로 꾸밀 수 있나, 두 여성이 과연 시녀일까, 의문과 의심이 뒤섞였다.

정면상의 남편과 달리 부인이 몸을 틀어 앉은 까닭에 내 맘대로 답을 찾아보았다. 먼저 정면보다는 측면이 낯선하게 보인다는 것은 당시 여성에게도 필수 상식이었다. 다음 통속 드라마에서 한 장면을 빌려온다.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 부인은 남편을 향해 묻는다. “뭇 여성들에게 가려졌던 나의 커다란 존재의 의미가 이제는 보이시나요?”

얼굴 이미지가 주는 단상은 통길과 같다. 길이 없던 곳인데 많은 사람이 지나가 한 갈래로 난 길처럼 시간이 지나면 여러 얼굴 위를 오가던 생각의 가지들은 한 줄기로 수렴된다. 그리움의 편린들이 이정표가 된다.



안악 3호분 벽화 모사도, 무덤주인 부인



안악 3호분 벽화 모사도, 무덤주인

얼굴과 손에 온기 가득한 살갗의 질감을 지닌 청자 여인상(국립중앙박물관 '신안해 저선에서 찾아낸 것들' 전시).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워 도자기용 태토를 그대로 드러내는 기법, 노태露胎에서 장인의 숙련된 솜씨와 세련된 미감이 느껴진다. 청자 연잎의 가운데에는 붓이 솟아 있어 촛대로 쓰였다고 여겨진다. 첫눈에는 여인이 곁눈질로 촛불을 살피네 했지만 바로 그게 다가 아닌데 짐작케 했다. 여인의 새침하고 뽀로통한 표정이 단숨에 유년기의 한 순간을 불러다 놓아서였다.

철모르던 시절 한 살 차이 남동생과 치고받는 싸움은 일상이었다. 동생이 껌싸게 내뺨버리면 꾸중 듣기는 고스란히 내 차지였다. 신나게 딱지치기와 구슬치기를 하고 있을 동생이 바로 옆에 있는 듯 입을 삐죽거리며 눈을 흘기곤 했다. 그때 들려오던 소리, “너 그러다 가자미 눈 된다.” 한쪽으로 눈이 쏠린 생선이 14세기 원나라에서도 밥상에 올랐는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청자 여인상을 빚어낸 장인이 그 눈초리에 가려진 속내를 눈치 챘는지는 안다. 왜 큼지막한 매듭의 리본이 어여쁘게 달려 있었는가.

기쁨 난, 내 얼굴이 낯설다. 스치듯 지나간 세월의 더께를 마음속에서 쓱쓱 지워 봐도 그렇다. 내 부모의 얼굴, 그 부모의 부모의 얼굴, 내 얼굴에 스며들어 있을 무수한 얼굴들이 옆치락뒤치락 자리다툼을 해서일까. 겪어온, 그리고 겪어낼 삶의 이력이 얼굴에 다 쓰여 있다는 것도 그 혈육들의 얼굴 때문이려나.

내 얼굴을 보고 또 본다, 아니 찬찬히 읽어본다. 세상은 무대고 인간은 배우라 했던가. 글로는 쓰일 수 없어 대본이 없다는 인생 드라마에서 소리 없이 희로애락의 변주를 시연 중이다. 🐼

문정원 회원



청자 여인 입상. 국립중앙박물관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에 대한 고찰

본 논문은 758년이라는 건립연대를 지닌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이하 '갈항사지 탑'으로 명기함) 관련 연구가 양식 분석을 위한 자료 이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까지 포함하여 탑을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현상적 특이점 때문에 기존의 연구와 언급들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는데, 본고는 여기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을 순차적으로 풀어보는 데 주목하였다.





도판1. 부조상 제거 흔적

현상적 특이점

갈항사지 탑은 신라 석탑 연구사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동탑의 상층기단부에 새겨진 “二塔天寶十七年戊戌中立…”로 시작하는 조탑기造塔記가 남아 있어서 758년이라는 건립연대를 알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표면에 뚫린 수많은 못구멍으로 인해 건립 당시에 금속제 표피를 씌워 표면을 장식한 유례없는 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갈항사지 탑은 통일신라시대 일반형석탑의 양식적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빠짐없이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 모두 검토가 필요하다. 첫 번째 이유인 758년 건립기록은 탑을 건립한 뒤 곧바로 새긴 것이 아니라 최소 27년이 흐른 뒤에 새긴 것이기 때문이다. 건립연대에 대한 신뢰성 검토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758년에 유례없는 표면 장엄탑을 만들었다는 기존의 견해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 초층 탑신석에서 찾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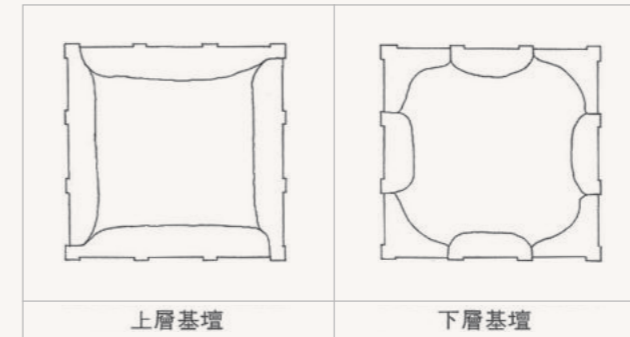
있는 현상적 특이점은 표면장엄 시기를 건립 이후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도판1] 부연하면 초층 탑신석의 중앙부에 뚫린 못구멍들은 부조상이 있던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동일한 지름과 깊이를 지니고 있어서 부조상이 제거된 다음 편평한 상태에서 뚫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건립 당시의 갈항사지 탑은 초층 탑신석에 부조상이 새겨진 일반형석탑이었으나, 이후 어느 시점에 부조상이 제거되고 표면은 금속으로 장엄되는 변화를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탑기의 신뢰성 검토

신라 석탑을 연구함에 있어서 기단부의 부재 배열 방식과 부재 간의 비례를 파악하는 일은 탑의 발전 및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연구수단이 되고 있다.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과 같은 초기 탑에서 보이는 복잡성과 불규칙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간결성과 규칙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항사지 탑이 양식사적으로 부합하는지는 조탑기의 신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다.

신라석탑 시기구분법 즉 기단부 배열방식의 양상에 따른 시기 구분에 근거해 갈항사지 탑을 분석해 보면, 동탑의 기단부는 [도판2]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와 같은 기단부의 배열은 경주의 나원리 오층석탑, 천군동 동·서 삼층석탑, 불국사 석가탑, 마동 삼층석탑 등에서도 살필 수 있는 것으로서, 686년에서 780년이라는 넓은 편년 범위를 지닌다. 비례적 특성으로 시기를 좁혀보면 갈항사지 탑은 상층기단 면적의 높이와 너비가 1:2, 초층 탑신의 높이와 너비가 1:1.08의 비례를 지니고 있는데, 석가탑과 유사한 비례를 보이고 있다. 750년대 초에 건립된 석가탑의 비례는 1:2.7, 1:1.15로 갈항사지 탑이 다소 세장한 경향을 보

이고 있으나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와 같은 양식 분석 결과는 조탑기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게 해준다.



도판2. 동삼층석탑 기단부 배열

조탑기를 새긴 시점과 배경

조탑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탑을 건립한 때와 조탑기를 새긴 때가 최소 27년의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동삼층석탑 상층기단부에 새겨진 조탑기의 명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도판3]

“二塔天寶十七年戊戌中立在之 甥姊妹三人業以成在之 甥者零妙寺言寂法師在旸 姊者照文皇太后君妳在旸 妹者敬信太王妳在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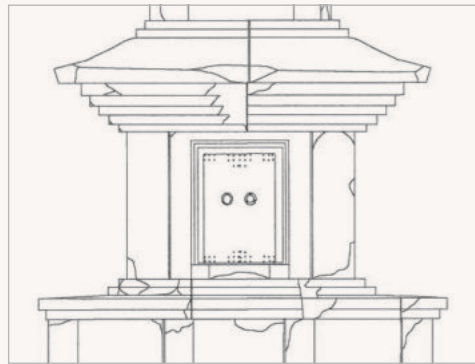
위의 내용은 갈항사지의 두 탑이 천보天寶 17년(758)에 삼남매가 발원한 것이며, 발원자는 영묘사零妙寺의 언적법사言寂法師, 조문황태후照文皇太后, 경신태왕敬信太王의 이모라고 밝히고 있다. 조탑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경신태왕과 조문황태후는 『삼국사기』에서 확인 가능한 인물로, 원성왕(재위기간:785~798)과 그의 어머니인 계오부인繼烏夫人 박씨朴氏를 각각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은 8세기 후반 원성왕 재임기에 새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도판3. 동삼층석탑 조탑기

조탑기의 내용이 시차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후보돈의 『三國遺事』勝詮髑髏條에 대한 연구가 주목된다. 후보돈은 뒤늦게 새긴 조탑기를 승전스님이 이 절을 개창한 이래 2차례의 대규모 중창重創 사실을 알려주는 단서이자, 원성왕 외척들의 위상변화를 알게 해주는 증거로 해석하였다.

그들에 의한 758년 중창은 암자와 같았던 곳을 금당과 탑을 갖춘 번듯한 사찰로 변모시킨 대규모 사업이었겠지만 발원자들의 위상이 약한 데다 문무왕의 개인적 불사 시주를 금지한 조칙이 여전히 유효했던 탓에 갈항사의 중창 사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없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조탑기를 새긴 8세기 후반은 김정신이 왕위에 등극함에 따라 강력해진 그들의 위상을 바탕으로 갈항사에 중창 불사를 다시 진행하면서 기존에 남기지 못했던 건립 사실까지 탑에 남



도판4. 고선사지 삼층석탑

긴 것이라고 보았다. 후보돈의 이와 같은 해석은 역사적 사실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어 매우 설득력이 높다. 짧은 명문의 이면에 숨겨진 시대적 정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표면장엄 시기 검토

갈항사지 탑의 표면장엄이 건립 이후 시점에 추가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가 한정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표면장엄이 이루어진 시기 검토는 양식적으로 상관관계를 지닌 고선사지 삼층석탑과 傳인용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장엄수법 변화 양상을 통해 진행하였다.

석탑의 표면에 못구멍을 뚫어 금속판을 부착하는 장엄수법은 고선사지 삼층석탑에서 처음 선보인 것이다. 이와 같은 장엄 수법은 남아 있는 예가 거의 없어서 갈항사지 탑, 傳인용사지 동·서 삼층석탑 정도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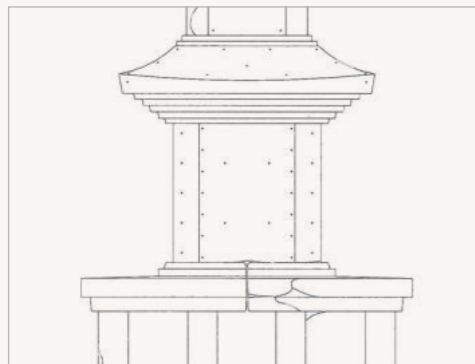
고선사지 삼층석탑은 초층 탑신석에 문비를 모각한 다음 규칙적인 간격의 못구멍을 뚫고 그 위에 금속제 장식판과 문고리를 부착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傳인용사지 삼층석탑은 초층 탑신석에 문비를 모각한 다음 문고리가 달리는 부분만 못구멍을 뚫어 관련 부속을 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붕면 전체에 금속판을 덧대어서 화려한 장엄 효과를 꾀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갈항사지 탑은 초층 탑신석에 새겨져 있던 부조상을 없앤 뒤 탑신석과 옥개석 전체에 규칙적인 못구멍을 뚫어 탑신부 전체에 금속판을 부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면장엄의 화려함은 신라 석탑 중에서 단연 으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갈항사지 탑의 표면장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립 당시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갈항사지 탑의 건립시기를 배제한 채 세 탑의 표면장엄의 변화양상만으로 선후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면장엄의 변화양상으로만 따져보면 [도판4~6]과 같은 순서로 나열 가능하다. 고선사지 삼층석탑은 傳인용사지 동·서 삼층석탑에 영향을 주었고, 傳인용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갈항사지 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판5. 傳인용사지 동서삼층석탑(복원도)



도판6. 갈항사지 동서삼층석탑

표면장엄의 변화양상은 적어도 갈항사지 탑의 표면장엄 시기가 傳인용사지 삼층석탑의 건립 시기보다 앞서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傳인용사지 삼층석탑의 건립 상한이 8세기 후반에 해당하므로 갈항사지 탑의 표면장엄 시기도 8세기 후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맺음말

지금까지 갈항사지 탑의 현상적 특이점에 주목하여 파생되는 의문점들을 순차적으로 해석해 보았다.

탑의 양식사적 접근을 통해서는 탑 건립연대(758)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조탑기를 새긴 시점과 배경에 대해서는 후보돈의 연구성과를 빌어 갈항사에 두 차례의 중창 불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갈항사지 탑의 표면장엄 시기도 살펴보았는데, 갈항사지 탑의 표면장엄 시기는 8세기 후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심사평_최응천(동국대학교 교수)

통일신라시대 석탑 가운데 제작년대를 탑신에 기록한 유일한 탑이자, 통일신라 탑 연구에 가장 중요한 편년자료인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을 고찰한 논문이다. 우선 두 탑의 초층 탑신석에 보이는 양식적 차이를 규명하였고 탑이 건립된 시기는 조탑기에 보이는 천보 17년(758)이 맞지만 탑을 건립한 후 30여 년이 흐른 이후 새로이 새기게 된 특이한 현상을 명문의 내용 분석과 최근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그 배경을 밝혀내었다. 갈항사지 석탑의 제작시기와 조탑기 문제, 그동안 심도 있게 다뤄지지 못하였던 석탑 외부 금속 장식과 그 부착공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참신한 논고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심사평_배재호(용인대학교 교수)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 758년에 조성된 기년명 석탑으로서 우리나라 석탑 연구의 기준작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되어 왔다. 본고는 조탑기가 30년 뒤인 원성왕대에 와서 왜 추가되었는지, 석탑 표면에 나타난 독특한 장엄 흔적이 추가 시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한 논문이다. 본고는 참고자료의 인용 등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탑을 둘러싸고 있는 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갈항사지 탑이 화려한 장엄탑으로 거듭난 때는 두 번째 중창 불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8세기 후반이 유력해 보인다. 탑신부 전체를 금속판으로 장엄한다는 일은 자금과 인력, 시간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정을 바탕으로 갈항사지 탑의 변화 과정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하다.

758년 계오부인 박씨와 그녀의 형제들은 암자와 같았던 갈항사를 고쳐 세우면서 초층 탑신석에 부조상을 새긴 일반형석탑 두 기를 금당 앞에 건립하였다. 이후 김경신이 왕위에 등극(원성왕/재위기간:785~798)함에 따라 강력해진 위상을 바탕으로 갈항사에 또 한번의 중창 불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약 30년 전에 세웠던 탑들도 새롭게 장엄하기로 하였다. 초층 탑신석에 새겨진 부조상은 정해진 의장계획憲匠計劃에 따라 제거되었고, 탑신부에는 이미 만들어진 금속판이 부착되었으며, 표면장엄이 끝난 뒤에는 과거에 남기지 못했던 조탑기가 동탑의 기단부에 새겨졌다. 🌿

임재완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기사용
검과 매듭 장식>, 1733년 이전,
무기박물관 소장
© Staatliche Kunstsammlungen Dresden



왕이 사랑한 보물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 명품전

특별전 <왕이 사랑한 보물 -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 명품전>이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전시기간은 9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 연합체인 드레스덴 박물관연합의 18세기 독일 바로크 왕실 예술품 130건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다. 전시의 주인공은 작센의 선제후이자 폴란드의 왕 '강건왕 아우구스투스(1670~1733)'로, 그가 수집한 작품들과 귀금속 공예품, 또 유럽 최초의 마이센 도자기와 중국, 일본의 수출도자기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전시의 1부에서는 전시의 주인공인 '강건왕 아우구스투스'를 소개하고, 그가 추구한 절대군주로서의 이미지와 '강건왕'의 함축된 의미, 그 안에 숨겨진 양면성을 전시품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2부에서는 최고의 예술품을 수집하여 공개한 보물의 방인 '그린볼트'를 소개하며, 이어서 3부에서는 아우구스투스가 실현하고자 했던 '도자기 궁전'의 구상을 살펴 본다.



<배 형상의 탁자 장식>, 1603~1609년경, 그린볼트박물관 소장 © Staatliche Kunstsammlungen Dresden



<중국 경덕진 청화백자 장식 자기 세트>, 1700~1720년경, 도자기박물관 소장 © Staatliche Kunstsammlungen Dresden



점치는 뼈, 삼한실

소원을 말해봐

비가 올까,
근심이 서려요.

전쟁에서 이길까,
간절함이 담겨요.

갈라지는 대지처럼
자식을 떠나보내는 어미처럼
뜨거움을 삼키며
하늘의 소리를 새겨요.

※ 점치는 뼈(복골卜骨)로는 거북의 등이나 배 껍질, 소나 사슴 등의 어깨뼈를 썼다. 구멍을 파고 불로 지진 후 뒷면에 나타나는 갈라진 조문兆紋을 해석하여 길흉을 점쳤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萬,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회장을 거쳐 2011년 11월 金正泰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金正泰
 副 會 長 | 申聖秀 洪錫肇
 理 事 | 金信韓 金英那 南秀淨 朴殷寬 禹燦奎
 尹碩敏 尹在倫 李健茂 李圭植 鄭溶鎭
 許榕秀 洪政旭 裴基同
 監 事 | 金教台 李教祥
 事 務 局 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주작회원 尹光子 회원	金承謙 金信韓 南秀淨 都炯泰 朴炳燁 朴容允 俞相玉 尹在倫 李圭植 李明姬 李垞炘 鄭明勳 鄭在鳳 趙顯相 許允秀 洪政旭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대성 사장 (주)썬앳푸드 사장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팬택&큐리텔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경신금속(주) 대표 일우재단 이사장 MashupAngels 대표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주)한섬 효성 산업자재 PG장&전략본부 부사장 (주)ALTO·(주)ALTEK 부사장 (주)헤럴드 회장
현무회원 金正泰 하나금융그룹	姜院基 金教台 金南延 金錫洙 金寧明	오리온 대표 삼정회계법인 대표 (주)동훈 대표이사 동서식품(주) 회장 (주)예울 이사장
천마회원 朴殷寬 (주)시몬느 회장 孫昌根 소장가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申憲澈 SK에너지 尹碩敏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尹章燮 전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鄭溶鎭 신세계그룹 부회장 千信一 세종문화재단 이사장 許榕秀 GS EPS 대표이사 洪錫肇 (주)BGF리테일 회장	은관회원	
금관회원 姜德壽 (주)STX 庚 園 광제사 주지 權俊一, 具在善 Actium Group 부회장 曉 曠 회원		

金英姬 金鍾漢 金芝延 柳芳熙 朴英柱 朴知原 朴禎原 裴東眩 徐載亮 成來恩 成弼鎬 宋 哲 梁洪碩 禹燦奎 柳昌宗 李教祥 全裁範 崔杜準 崔正勳 최철원 韓惠舟 許允烘	회원 (주)종합전기 대표 (주)건설 대표 (주)풍산주택 회장 (주)다이소아성산업 부사장 두산중공업(주) 대표이사 부회장 두산 네오플렉스 부회장 창성그룹 대표이사 사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광성기업(주) 대표 성문출판사 대표 대신증권(주) 사장 학교재 대표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금강공업(주) 사장 (주)동남유화 부회장 대보건설(주) 부사장 M&M(주) 사장 하피스트 GS건설 전무
--	--

청자회원

姜承模 高基瑛 具東輝 具本權 具本商 具本赫 金建昊 金京姬 金寧慈 金大煥 金東官 金東準 金斗植 金性南 金性完 金世淵 金永珉 金榮秀 金英惠 金裕錫 金侖壽 金恩惠 金益煥 金仁順 金載烈 金載勳 金正宙 金宗學 金兌炫 金澤辰 金賢銓 南兌勳 柳重熙 柳智勳 朴環鎭 朴仙卿 朴善正 朴宣注 朴世昌 朴載相 朴載蓮 朴廷彬 朴正遠 朴俊泳 朴海春	KP그룹 부회장 (주)금비 부회장 (주)LS 이사 LS-Nikko동제련(주) 부장 LIG넥스원(주) 부회장 LS-Nikko동제련(주) 전무 삼양사 팀장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주)예울 명예이사장 (주)슈페리어·슈페리어홀딩스(주) 사장 한화 큐셀 전무 다우데이터 이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스무디킹 Global CEO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김&장 법률사무소 2014아시아게임 조직위원장 제일화재 이사장 (주)해남 대표이사 지리산 문학관 관장 서울도시가스 이사 한세실업(주) 상무 한국고미술자기 연구소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영풍제약 부사장 (주)NXC 대표이사 서양화가 성신양회(주) 사장 (주)엔씨소프트 대표 히든베이호텔 사장 국제약품 대표이사 사장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주)한답 사장 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웅인대학교 부총장 대선제분(주) 전무 영은미술관 관장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 성곡미술관 이사 (주)신원 부회장 재미교포 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方正梧 裴允植 徐東姪 薛允碩 孫元洛 宋秉峻 辛炳讚 申硯均 辛永茂 愼昌宰 沈宗玄 楊仁集 梁汰會 吳勝敏 吳治勳 柳東鉉 俞承熹 柳英芝 尹 寬 尹普鉉 尹勝鉉 尹賢慶 李甲宰 李圭鎬 李起雄 李萬圭 李美淑 李常宰 李善眞 李承勇 李英純 李鈴子 李玉卿 李容濬 李宇成 李宇鉉 李雲卿 李胤基 李仁洙 李宰旭 李廷龍 李周成 李柱翰 李濬宇 李芝衡 李哲雨	TV조선 상무 (주)한국제인모터 대표이사 회원 대한광통신 사장 (주)경동홀딩스 상무 (주)게임빌·(주)컴투스 대표이사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아름지기 이사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한국기구박물관 부관장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인성산업(주) 전무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BlueRun Ventures 대표 호림박물관 이사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동화약품 상무 삼일회계법인 전무 코오롱 인더스트리 상무 열화당 대표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삼표산업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목금토갤러리 관장 (주)에이티파트너스 대표이사 한국미술협회 회원 서울옥션 대표 (주)경농 부사장 (주)이테크건설 부사장 OCI 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수원대학교 이사장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가나아트갤러리 대표 세아제강 전무이사 (주)삼익유니버스 이사 흥아해운 전무 창원지방법원전주지원 판사 롯데쇼핑 총괄사장
--	--

李學俊 李海珍 林鍾勳 張善霞 張升準 張仁宇 洋賢財團 田永采 田潤洙 丁恩美 鄭義宣 鄭在昊 鄭志伊 趙炳舜 曹榮美 曹榮峻 曹在顯 趙希卿 陣在旭 千碩圭 崔世勳 崔雄善 崔仁善 崔再源 崔惠玉 한국도로공사 韓榮宰 咸泳俊 許正錫 許辰秀 玄明官 玄智皓 胡鍾一 胡昌成 洪範碩 洪碩杓 洪誠杓 洪元福, 金根鎬 洪正國 洪正道 洪進基 洪振碩 黃仁奎 Joseph Bae Mark Tetto	서울옥션 고문 NAVER 이사회 의장 한미IT(주) 대표이사 (주)교원 부문장/부장 매일경제 사장 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 대표이사 (주)한길봉사회 이사장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블룸앤코 대표 현대자동차 부회장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현대유엔아이 전무 성암고서박물관장 경동소제 대표이사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주)가온소사이어터 대표 하나유비에스 대표 천일식품(주) 대표 (주)카카오 CFO (주)인팩 대표이사 회원 SK(주) 부회장 회원·자원봉사 노루홀딩스 회장 (주)오투기 회장 일진홀딩스(주) 대표이사 SPC(주) 부사장 (주)화승R&A 부회장 호성호업 회장 (주)더벤처스 대표이사 남양유업(주) 부장 고려제강 상무 고려상사(주) 부회장 회원 (주)BGF리테일 전무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대표이사 사장 마리오아울렛 이사 남양유업(주) 상무 충남도시가스 대표이사 KKR Asia Limited 대표 TCK Investments 상무
--	---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